

그때 그랬지...

- 내가 머리칼을 자른 이유 -

1년전..



관측선 송신으로 발령을
받으면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.
머리를 길렀대기 보다는
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
더 정확할 것이다.

평생 처음으로 머리를 길렀다. 1년 넘게
길렀으니 머리카락이
얼마나 자랐을까...
2~3년치 이발방보다 더 비싼 패셔너 해
보고.. 웨이브도 잘 났었고...



어
라
모
든
것
다

그날도 관측선 눈이 내렸던 날이었다.
나의 출퇴근길이자 등산로가 열기 시작했다.
아이젠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.



그때는 내 나름대로의
의견 표출이기도 했지만,



"자네 머리가 왜 저러?"

거울을 볼때마다 뿌듯했다.
웨이브도 잘 났었고 긴
머리카락.. 우~
그때는 몰랐다. 머리카락이 그렇게
많이 났다는 것을.

"이런~ 아까워라."



오늘도 대충 눈이 내렸기 바나삭이 풀반 눈
반.. 관측선은 돌이 많아서 눈이 쌓이지
않으면 아이젠이
자극 상한다. 이발이 6개월된 내 눈중
한 아이젠이 부딪힐까봐 손에 들고 살
살 내리꼈었다.

평일이라 등산로는
한가했다.
한참을 내려 있는데
아침마다 그러하
상처지나갔다



아빠사, 이런.' 그 아줌마들을 피
해간다고 약간 얼굴로 간 것이 문
제였다.

내리막 경사로부터
미끄러진 것이다.

내리막길은 단순히
제어할 수가 없었다.
앞으로 걸었다. 눈이 이제 끝이구나.
죽었다. 쪽팔림과 등 세가지 정도
가 생겼던 것 같다.



내가 내 머리칼을 길
렀는데는
중요하지 않다.
'지금 이 순간.. 내가 누구
지..? 아~
쪽팔림..'
'이~수 고맙게'



일단 얼굴은 적실 것 같고 어
개가가 백살 샀을 게다...
아이젠이 부러질까봐
손에 팔랑팔랑 들고
산을 내려온 것이
화근이었다. 이런 전쟁.
아이젠치고 내려 올걸...

방금 지나친 아줌마들이 야속한 순간이었다.
쪽 팔리고 아프고 걱정되고..
일단 들바닥에 앉았다. 온통 흙으로 뒤 범벅이 된 상태..
대충 털고 절뚝대면서 내려온다. 아프지만, 안 아픈 듯..
폐자병의 물결 이랄까..?



그때는 몰랐다 내 모습이
어땠는지... 배는 팔때는
머리를 똑숙이고 왔다.

그 다음날 바로 민왕일로 갔다
그날 이후 오랫동안 난 군악대 머리를
유지했다.

전철 화장실로 가서 처음
봤다. 거울속의 노숙자를..

